

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그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한국교회의 분열, 그 역사적 요인

이상규

1. 머리말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경과한 이제 지난 100년 간의 한국 교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가장 가슴아픈 한 가지는 한국 교회사는 거듭된 분열의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교회(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교단) 분열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신학적 혹은 신앙고백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주로 유치한 형태의 인연과 지연 혹은 계파 의식에 기준한 정치적·교전적 이유에서 분열되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는 ‘분열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사는 곧 한국 교회 분열사라 해도 지나

친 말이 아니다. 장로교의 경우 기구적 치리회의 조직, 곧 1912년의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이후부터 1951년까지 약 40년 간은 형식적으로 나마 단일 총회 아래서 일치를 경험했을 뿐, 분열의 과정은 거듭되어 지금은 43개 교단으로 분립되어 각기 다른 총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단만도 40개에 달한다고 하니 어찌 혼란한 교계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분열하면서도 소멸되거나 사멸되지 않고, 분열의 비극 가운데서도 수적으로는 성장하여 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분열하면서 성장해 왔고, 성장하면서 분열을 거듭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100년 간의 한국 교회사의 ‘史’의 개념을 형성해 온 두 공간 좌표는 분열과 성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모순된 지향점이 공존한 가운데 한국 교회 100년 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는 바로 이 사실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노정(露呈)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의 당위성없는 분열이 정상화된 가운데 수적인 성장을 통하여 분열의 정당성을 만회하려는 일련의 인간적 노력과 깊이 관련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곧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분열의 대부분의 경우는 교리적인 문제, 곧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나 교권 대립, 파벌 의식 등 신학 외적인 것에 기인하며 각기 별도의 총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단 분립의 정당성이 희박하다.

교회의 분열이 비단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과 저급성에 있어서 과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소

위 지도자들의 책임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본인은 해방 이후의 한국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한국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근원적인 요인과 역사적 원인을 지적하므로 한국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의 소재를 천착하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미국 교회의 교파 중심적인 선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가 어떤 경로로, 어떤 형태의 선교에 의해 한국에 전래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피선교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예전 등 제측면은 항상 선교국의 그것을 답습, 모방, 이식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피선교국의 교회는 선교국 교회의 한계성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북아프리카 지방의 신학과 예전에 차이가 있어서 저들에 의해 각기 다른 형태의 기독교 선교가 있었던 것처럼, 18·19세기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될 당시에도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국교적 형태를 견지해 왔던 유럽의 교회들과 교파 중심의 교회로 성장해 온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교회는 그 신학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예전이나 의식 등 문화사회적 상황과 연계되는 점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는 한국인의 구도적 자각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기독교 영입 운동이다. 18세기 실학파들이나 남인 벽파 계통의 당시 정치적 주도권에서, 소외된 일부 인사를 통한 로마 가톨릭 영입운동

이나 19세기 중엽 만주, 우장을 중심한 한국인에 의한 프로테스탄트 영입 운동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천주교의 경우 외국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에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를 중심한 서학(천주교) 연구와 영세받은 천주교 신자가 생겨나고, ‘제1차 가성직교단’, ‘제2차 가성직교단’ 등의 한국인에 의한 교회 조직의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개신교의 경우 한국인 세례 교인의 탄생(1876년), 최초의 교회 설립(1884년), 성경 번역(1882년) 등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자생적(自生的) 기독교 형태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적 기독교 영입 운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1885년 이래 시작된 미국의 교파단위적인 선교에 의해 한국 교회가 주형화되므로 그 역사적 의미가 계승, 구체화되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한국인에 의한 구도적 영입 운동에 의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해 갔다면 그 성장의 폭은 제한되었을지 몰라도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분열은 없었을 것이 틀림없다.

둘째로는 서구 교회의 국가단위적인 선교를 들 수 있다.

미국 교회의 교파단위적인 선교에 앞서서 서구 교회들이 중국을 징검다리로 하여 한국 선교에 힘을 기울였으나 이름 그대로 바다를 스쳐가는 접촉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에 의한 선교의 열매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서구 교회의 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만일 서구 교회의 국가단위적인 선교에 의해 한국 교회가 주형화되어 갔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분열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서구적 전통의 기독교 형태가 자리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세번째로 미국의 교파단위적인 선교에 의한 기독교 전래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 수용, 조직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교회의 교파

중심적인 선교 운동의 결과였다.

‘교파’(Denomination)란 말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주로 18세기부터 빈번히 사용된 용어로서 어떤 특수한 종교적 입장에서 결합된 종교 공동체에 붙여진 명칭이다. 다시 말하면 교파란 종교개혁 이후 구라파의 기독교 국가적인 전통이 와해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들이 국가와 분리되어 문화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물론 교파의 형성에는 신학적 요인이 주된 동기였지만 미국의 리차드 니이버(Richard Niebuhr) 같은 이는 교파 분열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어떻든 미국 교회는 교파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온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선교 운동은 처음부터 ‘교파 중심적’ 성격을 띠고 행해졌던 것이다.

1884년 알렌이 입국한 이후 1885년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와 북감리회의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의 입국,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된 미국 교회의 선교의 결과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수용되어 갔다. 미국의 교파단위적인 선교에 의해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 수용되어 갔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분열을 포함한 한국 교회를 논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한국의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권 하에서 성장, 발전, 분열해 왔으며 미국 교회의 각이한 교파들의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교회적 형식이 이식되어간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운동은 처음부터 여러 갈래의 교파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의 교단의 분열은 똑같이 한국에서도 재연되었던 것이다.

물론 선교 초기 각기 다른 선교부가 한국에서 선교할지라도 한국

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자각 아래 주한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가 단일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한 바가 있었지만 본국 선교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개혁 이후 교파적 신앙 공동체의 이주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서 그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정교가 분리되어 국교(國教)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파적 형태의 기독교로 발전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런 교파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기구적 일치면에 대한 관념이 회박한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교회사상 술한 분열이 죄의식 없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교회가 비록 각기 다른 선교부를 통해 선교 활동을 했을지라도 한국에서의 하나의 교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좀더 지혜롭게 한국 교회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국 교회는 미국의 각이한 교파들의 선교 운동에 의해 복음이 전래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교파와 교단들로 나누어 조직되었고 미국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한국 교회도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3. 선교지 분할 정책

한국 교회 분열에 대한 근원적인 요인을 고찰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초기 선교 정책이다. 특히 선교지 분할 정책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 이후의 한국 교회 분열과 묘한 상관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여러 교파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자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선교부 간의 필요 이상의 경쟁과 인적, 재정

적 낭비였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는 보다 빠른 기간 안에 한국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선교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선교 지역을 분할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선교지 분할 정책은 1890년대에 구체화되어 갔다. 즉 1893년 1월 28일 북장로교 선교사 빈톤 (Dr.C.C.Vinton) 의사 집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회집하여 ‘장로교 정치를 쓰는 선교 공의회’ (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였는데 이 선교 공의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지 분할안을 채택했는데, 이것을 보통 예양 협정 (Comity Arrangement)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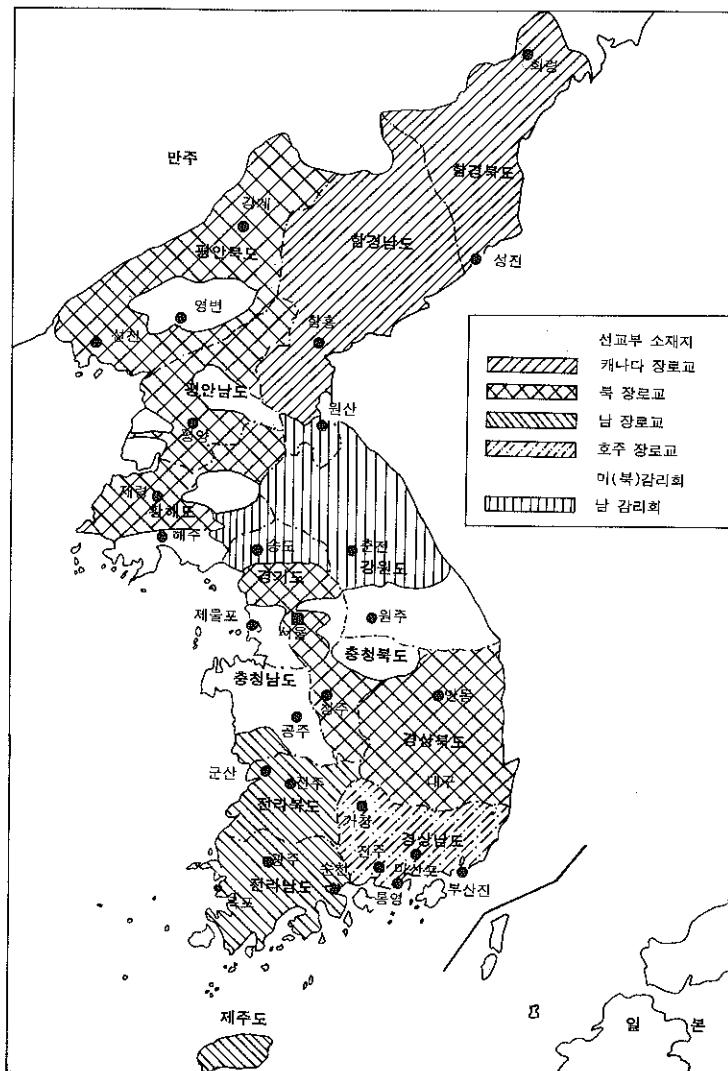
이 분할안은 몇 차례의 조정이 뒤따랐으나 대략 다음과같이 분할되었다. 즉 미국 북장로교(그 후의 명칭은 미국 연합장로교)는 평양, 선천, 재령, 강계,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등 평안도, 황해도와 경상북도 지방을 맡았고, 미국 남장로교(지금은 연합장로교와 통합하여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다)는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방을, 캐나다 장로교(현재의 캐나다 연합교회)는 함경도 지방과 간도 지방을,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부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각각 선교를 하였다.

물론 다른 교단들, 이를테면 침례교,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 등과는 선교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저들 교파는 선교지 분할 정책과 관계없이 선교하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 장로교 분열을 생각해 보면 공교롭게도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분할은 장로교 분열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 같은 것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고려파는 경남 지역, 곧 호주 선교부의 선교지역과 관련이 있다. 즉 고려파는 해방 이후 호주 장로교의 선교 지역이었던 부산, 마산, 진주, 거창 등지를 거점으로 형성되었다.

한국 선교구역 분열도 (1928년 당시)



그리고 1952년에는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 장로회로 분립하였는데 이 교단에 참여한 인사들은 함경도 지방의 인사들이 많았다.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지역으로서 이들에 의해 다소 진보적인 입장의 신학이 전수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기독교 장로회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를 전후한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남·북장로교 선교부의 선교 지역과 각각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통합측은 북장로교 선교 지역과 관계되었고, 합동측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과 관련되어 교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사회 변화와 6.25사변 이후의 피난과 이동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4대 장로교회는 선교 지역 분할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교파적 선교의 영향과 선교 지역 분할에 따른 지역이라는 유치한 의식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교회의 교파단위적인 선교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부 간의 성격과 특성에 의해 분립의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었고 이것은 선교 지역 조정에 의해 더욱 고유화되어 갔던 것이다. 분할된 선교 지역은 선교부의 영향하에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역적 특성(곧 지역)과 결부되어 일치의 가능성은 회복해져 갔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불행하게도 분열을 고정화해 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한국 교회의 분열에는 우리 자체의 내부적 원인이 더 커고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이상 우리의 교회사는 궁극적으로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염두에 간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 책

임을 면할 수가 없다.

4. 보수주의 신학적 상황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형성

한국 교회 분열에는 신학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물론 교권적·정치적 파벌 간의 대립이 본질적인 문제였으나 이것이 신학적인 견해차에 기인하는 것처럼 위장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해방 후의 신학 논쟁이나 기독교 장로회의 분립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대다수의 피선교국의 교회가 걸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선교사가 입국한 후 50년까지, 즉 1930년대까지는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다. 특히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신학 작업이 행해졌고 한국인에 의한 구체적인 신학 형성에의 노력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1930년 이전까지는 선교사들의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하에 있었다.

초대 주한 선교사들은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 저들의 신학적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 장로교 외지 선교부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의 총무였던 브라운 (A.J. Brown)은 1911년 이전의 주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견해에 대해 다음과같이 논평했다. 즉 “개국 이후 첫 25년 간 내한한 선교사는 전형적인 퓨리탄형의 선교사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1세기 전 뉴잉글랜드에서의 그들의 조상처럼 안식일을

지켰으며 술이나 담배, 그리고 카드 놀이는 기독교 신자들이 빠져서는 안될 죄라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 비평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고 저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다고 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보수주의적이며 칼빈주의적인 교회로 특징을 이루면서 성장해 왔다.

민 경배 교수도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이 경전주의적인 복음주의였음을 강조하였다.

어떻든 초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칼빈주의적 보수 신앙의 소유자들이었고 이들의 영향하에서 초기 한국 교회의 신학(1930년까지)은 장로교 신학의 원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구 프린스턴 신학(Old Princeton Theology)을 이어받아 한국 장로 교회는 보수주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신학을 수용하는 조짐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선교사 중심의 신학에서 한국인에 의한 신학적 논구가 시작되었고 강력한 보수주의의 아성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인에 의한 논구가 이때에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밀은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신학을 공부한 이는 윤 치호(尹致昊)였는데 그는 1888년에서 1891년 사이에 미국 벤더빌트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그가 정치, 외교, 그리고 교육행정가로서의 일생을 바쳤지만 신학 논문을 남기지 못했던 것은 애석한 일이다. 단 평신도였던 최 병현(崔炳憲, 1858 ~ 1927년)은 1900년에 창간된 「신학월보」에 관계하므로 신학 연구에 진력하기도 했지만 사실 193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신학 연구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보수주의 신학과 성격을 달리하는 신학적 견해들이 피력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정통적인 보수신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신학적 문제들이 1930년 이전에도 간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16년 황해도에서 김 장호(金庄鎬) 목사가 성경해석상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1926년에는 서 고도(W. Scott)사건이 있었다. 캐나다 연합 교회 선교사인 서 고도는 이 해에 함흥에서 개최된 사경회에서 성서비평학을 용인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인 목회자들과 논쟁한 일도 있었다. 즉 그는 성경에는 역사적·지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김 판식, 조 회염 등은 이 주장에 동조했었다.

미국 북장로교는 캐나다 연합장로교보다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북장로교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1930년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 때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며 지역적(주로 캐나다 선교부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이었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대를 넘어 오면서 성경관에 있어서 분명한 견해차가 나타났다.

즉 보수주의적인 성경관과 진보주의적인 성경관이 분명하게 표명되었고, 1934년 이후에는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나 신앙 노선의 차이로 장로교 총회적 차원에서 논쟁을 전개하므로 이 때에 와서 선교사 중심의 이식(移植) 신학에서 벗어나 한국인에 의한 신학적 논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와서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입장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크게 4가지 동기, 혹은 영향이 있었다.

첫째로는 캐나다 연합 장로교 선교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선교사들 [서 고도(W. Scott), 프레지어(Frazier)]의 영향, 둘째로는 미국 북장로 교회의 신학적 좌경에서 오는 점차적인 자유주의

신학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세째로는 일제의 조선 통치 기간 중의 일본을 통한 바르트, 부르너 등의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 및 한국인의 일본 유학을 통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입, 그리고 네째로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정책의 조정으로 일부 지역이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어 버린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1930년대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를 설명하려 한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유학한 인사 중에 자유주의적 신학을 연구하거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인사가 귀국하여 집필이나 교수 등 신학 활동을 한 것이 그 첫 이유이다.

특히 일본에 유학하여 철학을 연구하고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채 필근 목사, 1933년 미국에서 귀국한 송 창근, 김 재준 목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어떻든 1930년대 중반기 이후 장로교 총회를 통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논쟁의 핵심 문제는 성경관의 문제였고 일본, 미국 등지에서 성서 비평학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의 성경 해석에서 야기되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1930년대 중반기 이후 한국 교회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 교회의 신학적 논쟁과 그 여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프린스頓 신학교는 1812년 설립된 이래 100여 년간 북장로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어서 유일한 보수주의 신학교로 명성을 날렸으나 1929년 교수진이 개편되어 점차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되어 갔다. 메чен (J.G. Machen, 1881~1937년)을 중심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頓을 떠나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 이 때 교수 8명과 52명의 학생들이 이들을 따라갔다. 이것은 브릭스 (Briggs) 사건이나 오번 선언 (Auburn Affirmation, 1924년) 등과 연류된 미국 교회의 신학적 변화를 반영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 교회의 신학적 기상도는 한국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한국 교회에 적지 않는 파문을 주었다. 미국의 교파 단위적인 선교로 시작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이런 분열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934년 제 23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김 영주(金英珠) 목사의 창세기 저자 부인 문제와 김 춘培(金春培) 목사가 제기한 여권 문제로 인하여 신학적 대립이 노정되었다.

193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실질적 인물은 김재준 목사였다. 김 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를 통해 입신한 김 재준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후일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에서 3년간(1925~1928년) 유학하였고 다시 도미하여 피츠버그에 있는 웨스턴(Western) 신학교에서 3년간(1929~1932년), 그리고 프린스頓 신학교에서 일 년 간 수학한 후 1933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남궁억 목사가 그를 평양신학교 교수로 천거하였으나 1930년부터 평양신학교 전임교수로 있던 박 형룡의 반대로 임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재준은 그 당시 장로교 대표적인 신학지였던 〈신학지남〉에 집필을 통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친명해 갖고 진보적 신학 입장을 폄나갔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박 형룡과 김 재준은 논쟁하게 되었고 김 재준은 1935년 5월 이후 〈신학지남〉에 글을 게재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신학적 대립이 해방 이후의 한국 교회 분열의 또 한 가지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과 발전은 일제하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5년 이후 한국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각급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1938년 장로교 제 27차 총회에서는 강압에 의해 신사참배가 가결되었고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까지 간섭, 통제하였다. 〈신학지남〉은 폐간되었고 평양신학교는 폐교되었다. 또 주한 선교사들은 1940년을 거치면서 일제히 한국을 떠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보수주의 신학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러한 신학적 공백 상태에서 자유주의 신학 형성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었다. 즉 1940년 4월에 송 창근, 김 재준, 윤 인구 등에 의해 서울 송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가 개교된 것이다.

이 조선신학교는 1940년대 보수주의 신학의 폐허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을 다져갔고 오늘의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진원지가 되어갔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는 해방 후의 한국 교회 분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52년의 기독교 장로회의 분리는 근원적으로 이 신학 운동과 관계된 분열이었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해방 후 한국 교회 분열에 관한 3가지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하여 보았다. 즉 한국에는 미국의 교파 중심적인 선교에 의해 복음이 전수되었고 저들의 교파 중심적인 선교와 그 영향력 하에서 처음부터 교단이 나뉘어질 수 있는 내적 요인을 안고 있었고, 이것이 주한 선교부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 고정화되었고 지연 혹은 인연이라고 하는 한국 특유의 파벌의식과 결부되면서 심화되어 해방 이후 교회(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추론이다.

이와 동시에 193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신학적 차이가 내재하여 한국 교회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음을 밝혀 보았다.

감리교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보수와 진보 양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외형적 교단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로교는 처음부터 보수주의 신학만을 절대시하고 그와 다른 신학을 소개하거나 가르치는 일조차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신학의 대두는 분열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의 잡다한 분열은 위에서 언급한 근원적인 내재적 원인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분열의 정당성은 실로 희박하다.

해방 후 가장 대표적인 분열은 고신파의 분립, 기독교 장로회의 분립, 그리고 통합파와 합동파의 분립인데 신학적인 견해차 혹은 교리적인 문제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정치 문제에서 파생된 교권적 배경이나 인연 혹은 지연 등의 인간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말의 합동파의 내분으로 인한 분열은 이름 그대로 혼란의 연속이었고 그 분열에서 신앙 고백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분열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많은 자기 변혁과 성찰의 과제를 지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엡 1:23)에 대한 바른 교회관과 “하나 되기를 힘쓰라”(엡 4:1-6)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화합과 연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외형적, 기구적 통일(uniformity)을 절대시하여 진리를 회생 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신앙 고백적인 일치(Unity)를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교육 문제

김 용 섭

1. 교회와 교육

무릇, 교육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 어느 하나의 역할만으로 인간 교육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 이루어진 대가정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하여 형성된 신앙공동체요, 죄씻음받아 의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부 상조하면서 살아가는 특수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닮은 온전한 신앙 인